

함양군, 산림청과 산양삼 연구·육성 박차

고동우 기자 | 승인 2023.10.26

26일 함양군청서 '함양 산양삼 생산시범단지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 체결

함양군과 서부지방산림청이 26일 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함양 산양삼 생산시범단지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3년 12월에 체결한 '삼봉산 생태 산약초 단지 조성' 협약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이를 2033년 10월까지 연장·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양군과 서부지방산림청이 26일 함양군청에서 '함양 산양삼 생산시범단지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함양군

협약 대상지는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에 위치한 22ha 규모 국유림으로 지난 10년 간 산양삼을 지속적으로 파종·식재·관리해 왔다.

이 지역은 영세농가를 위한 산양삼 묘종 공급을 비롯해 각종 교육·홍보 및 체험 행사, 지역 일자리 창출 등으로 함양 산양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함양군은 이날 협약에 따라 기존 산양삼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향후 10년 간 산양삼 종자 품종 등록 등 산양삼 연구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산림공익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종권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 산양삼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함양군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이번 협약은 함양군 산양삼의 브랜드가치 제고와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함양군과 서부지방산림청이 협업해 전국 공동산림사업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동우 기자

저작권자©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동우 기자



함양군, 서부산림청과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 체결

함양 산양삼 생산시범단지 통한 산양삼 품종 육성·보존 체계 구축

기사입력 2023.10.26 17:28:04 | 최종수정 2023.10.26 17:28:04 | 최원석 | ttlsuk@gmail.com



26일 함양군청에서 진병영 군수(왼쪽)와 정종권 서부산림청장이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함양군 제공)

경남 함양군은 26일 오전 군청 소회의실에서 서부지방산림청과 '함양 산양삼 생산시범단지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와 정종권 서부지방산림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산림사업 협약은 지난 2013년 12월에 10년 기간으로 체결한 '삼봉산 생태 산약초 단지 조성' 협약의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2033년 10월까지 연장·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대상지는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에 위치한 22ha의 국유림으로, 군은 협약 후 지난 10년간 산양삼을 지속적으로 파종·식재·관리해 왔다.

이를 통해 영세농가를 위한 산양삼 묘종 공급, 교육 장소 및 홍보장소 활용하는 것은 물론 산양삼 캐기 체험 행사를 비롯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함양군 산양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했다.

군은 이날 협약에 따라 기존 산양삼 파종·식재·관리에서 벗어나 향후 10년간 함양 산양삼 종자 품종 등록 등 산양삼 연구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산림공익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종권 서부산림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산양삼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함양군의 임업인 산림소득 증대와 함께 산양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병영 군수는 “이번 협약이 공동산림사업의 성공모형을 제시하고 나아가 함양군 산양삼의 브랜드가치 제고는 물론 산양삼 산업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함양군과 서부지방산림청이 협업하여 전국 공동산림사업의 성공모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산림사업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30여 개 지자체와 18개 조합, 법인, 연구소 등과 공동협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공익 시설, 연구사업, 소득개발사업 등의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원석 (ttlsuk@gmail.com)

© 2004~2022 Copyright by CNBNEWS. All rights reserved.

창닫기

인쇄하기